

수의병리학자 스코필드(Schofield)

김현영 펜실베이니아주 수의연구원 / 재미한인수의사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렸던 북미 국제 수의학회에 참석하면서 1919년 3.1운동 때 한국을 도와준 캐나다 출신 수의 병리학자 스코필드박사가 생각났다. 마침 토론토에 거주하는 신수길, 윤석호 대학 동문들을 만났는데 그들에 의하면 현재 토론토 한인 교포들에 의해 스코필드 동상 건립을 추진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더욱 옛대학 시절을 회상하게 되었다.

연건동에 있었던 서울대 수의과대학 시절에 스코필드박사로부터 직접 강의를 받은 바 있었는데 그는 아주 엄격하고 철저하고 실력이 많은 교수로서 당시 한국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추앙받던 교수로 지금도 기억되고 있다. 당시 한국 실정에서는 그의 세계적인 병리학 강의를 받아드릴 실력과 여유가 부족하였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다.

도살장에서 준비하여온 허파 심장등을 직접 장갑도 없는 맨손으로 만지면서 성심껏 설명하는 Gross pathology 강의를 제대로 받지못하였음은 물론 그렇게 훌륭한 교수를 잘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것을 생각할때 현재 병리학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필자로서 더욱 후회가 막심함을 느끼게 한다.

스코필드박사는 캐나다 온타리오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잠시 모교에서 연구하고 있었는데 당시 한국 세브란스 의전에서 신양이 돈독한 병리학 교수를 찾던 중 스코필드 박사가 초청되어 1916년 한국으로 부임하였다.

그후 1919년 3.1운동이 일어날 때 그는 신변에 위협을 무릅쓰고 독립운동과 관련된 문서와 탐골공원에 서의 만세시위와 일본인들에 만행을 사진으로 찍어 외국으로 보내 국제 사회에 알리는 등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다. 이로 인해 스코필드 박사는 독립선언 33인 다음으로 34인으로 추앙받은 분이다.

그는 1919년 일본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캐나다로 추방되어 다시 온타리오 수의과대학 교수를 하며 연구에 전념했다. 그는 젖소를 연구하다가 목



초용 Sweet clover에서 항 혈액 응고제인 Coumarin을 발견하여 오늘날에도 의학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1955년 온타리오 수의과대학을 은퇴하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 스코필드 박사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를 하며 남은 여생을 한국에서 마쳤다. 그는 1970년 4월12월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한국 국립묘지에 안장된 분이다.

그는 이와 같이 훌륭한 교수 뿐만 아니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에는 서울사대부고 (필자 출신고)와 숙명여고(필자 아내의 출신고)등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키며 기독교 선교사업에도 열심히 참여하여 오늘날 한국사회의 큰 일꾼들을 길러냈다. 또 그는 적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수입의 절반을 가난한 학생 50여명에게 장학금을 주며 공부를 시켰다.

더욱 훌륭한 일은 그가 여러개의 고아원을 찾아 돕기도 했다. 그중에 하나인 서울 독섬 건너편에 자리잡은 '봉은 보육원'이 있었는데 당시 그곳에는 80여명이 살고 있었다. 스코필드 박사와 미국 수의사들은 기부금을 조성해 고아원 주변의 대지 300여평을 구입 채전과 토끼장을 만들어 주었다.

지금은 출판이 중단 되었지만 얼마전까지 출판되었던 미국 수의학 전문학술지인 Veterinary Medicine (1961도 출간)에는 2면에 걸쳐서 스코필드 박사의 활동과 정신에 대해 소개했다.

그내용을 보면, “스코필드 박사는 현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 대통령으로부터 최고 한국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헌신적인 기독교인인 스코필드 박사는 그의 활동을 돕기 위해 수의학술회지 본부에서 조성한 ‘스코필드 기금(Schofield fund)’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이 기금은 우선 한국의 고아원에 있는 대지를 구입하여 고아원들에게 야채와 토끼고기를 먹게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스코필드 기금은 지금도 모금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제대로 못받을 뿐 아니라 굶주리고 있는 한국의 고아들을 위해 뜻이 있으신 수의사 여러분들께서는 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부자 나라 캐나다에서 당시 아주 가난하였던 한국을 위해 일생을 바친 스코필드 박사를 생각하며 가난한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 이곳 북미에 온 한인 수의과대학 출신들은 물론 한국에 있는 수의과대학 출신들도 현재에는 혹시나 풍요로운 혜택에 치우쳐 어려웠던 시기나 사람들을 잊고 살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우리들도 받은 것을 남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배워야 할 것이다.

필자는 미국 동부에 살고 있는 몇명의재미 한인 수의사들과 함께 100년 전 1,000여명의 한인들이 영동한 곳 멕시코 유카탄으로 이민 가서 현재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들 후예들에게 젓염소를 사주고 있다. 